이주초기 연변지역 조선인 교육사상의 형성 연구

김 해 영*

Ⅰ. 서론
Ⅱ. 조선인 교육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
  1. 사람과 문화의 이식(移植): 연변 조선인공동체 형성
  2. 교육과 이주 조선인: 이상적 삶의 통로
Ⅲ. 조선인 교육사상의 형성과정
  1. 이문화간의 마찰과 충돌: 교육의식의 생성
  2. 사상의 충돌과 융합: 교육사상의 쟁명
  3. 결정적 사상 간의 마찰과 융합: 교육사상의 선택
Ⅳ. 결론

국문초록

이주초기 수십 년은 연변지역 조선인사회가 점차 형성되는 시기로 조선인의 교육사상이 전통적인 봉건사상에서 근대적 사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충돌과 융합, 신구(新旧)·내외(内外)세력 간의 사상적 충돌과 융합의 시기이다. 나아가 공산주의사상과 민족주의사상 간의 충돌과 융합의 시기이기도 하다. 조선인 교육사상은 바로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다. 이 시기 연변지역 조선인 교육사상의 형성과정에 대한 심층적 고찰, 특히 사상의 충돌과 융합의 과정에 대한 탐구는 연변지역 민족

* 중국 연변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 부교수, 교육학 박사 / jinhaiying1265@hanmail.net

교육 발전의 근원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사적 근거이다. 이는 또한 이주초기 조선인의 교육에 대한 의식이 점차 중화민족일원으로서의 조선족의 교육사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사상적 기저이며 현재의 조선족 및 소수민족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족이 중국이주 정착 이후 진행한 수많은 교육적 활동 그 배후의 사상에 대한 고찰을 이주초기 즉 19세기 말~20세기 초라는 시간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주제어
연변지역, 조선인, 월경민족(越境民族), 교육사상

Ⅰ. 서론

연변지역[1]은 중국 조선족의 집거지역으로 조선족의 사회문화와 민족교육 발전의 중추지역이다. 조선족은 한반도로부터 월경천입(越境遷入)한 월경(越境)민족으로 그 역사가 길게는 300~400년, 짧게는 150여 년에 불과하다.[2] 하지만 그들의 독특한 적응능력과 생존의식, 그리고 중국 동북변방을 개척 및 수호, 나아가 변방의 안정에 대한 공헌, 조선족 특유의 교육열은 널리 알려진 바이다. 예컨대 19세기 중엽 이래 조선인들은 연변 나아가 동북의 황무지를 개척하고 수전 농법으로 벼농사에 성공함으로써 변방을 충실히 하는데 공헌,[3] 동북지역에서 가장 일찍 항일의 행렬에 서서 일제와 싸웠기 때문에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기념비"의 혁명정신을 고양,[4] 1980년대 이래 세계 각 국을 향해 초국가적 이동을 하는 가운데 표출된 중국에 대한 특유의 정체의식,[5] 1950년대 초등교육과 중학교교육을 보급 완료하였고 1980년대에 이르면 고등학교 교육을 보급 완료하였는바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소수민족으로 자리매김 되어[6] 그 교육열을 자랑하는[7] 등 다양한 노력들이 바로 그 입증사실이다. 전 민족적이고 안정적인 종교 신앙이 없었던 조선족은 장기적인 중국에서의 문화적응 및 발전과정에서 교육을 그들의 독특한 신앙

1) 연변(延邊)은 19세기 중엽이후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한 북간도(北間島)지역으로 훗날 조선인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편입되면서 연변조선족자치주로 된 곳이다. 본 글에서는 현재의 명칭으로 연변이라고 한다.
2) 본 고에서 사용되는 '조선족'과 '조선인(한인)' 용어에 관해서는 새 중국 성립이후의 부분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조선족', 그 이전의 부분과 관련해서는 '조선인'으로 한다.
3) 박금해, 「신민주주의혁명시기 중국공산당 민족정책의 동북조선족지구에서의 실천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2001(6), 21쪽.
4) 박금해, 앞의 논문(2001), 22쪽.
5) 박광성, 「재한 조선족 노무계층의 국가, 민족, 부족정체성 연구」, 『운남민족대학학보』, 27(3), 2010, 14쪽.
6) 이희·양화, 「새로운 형세하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 『중앙민족대학학보』, 1996(1), 23~29쪽.
7) 최성학·이천민, 『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이슈 연구』,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4, 21쪽.

으로 간주하였던 것이다. 이로써 그들 자체적인 독특한 교육사상이 형성된다. 이는 대개 만주사변 이전의 다양한 사상과 의식들이 충돌과 융합을 거치면서 기본적인 윤곽을 잡는다.

그동안 조선족교육사에 대한 연구는 주로 역사학자와 사회학자, 그리고 민족학자들에 의해 적지 않은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8] 역사학적 맥락에서 적지 않은 조선족교육의 역사적 사실들이 밝혀졌고, 사회학적인 맥락에서 시대별, 특히 이주초기 조선인사회의 형성과 교육에 대한 논의들을 해왔다. 민족학적 시각에서 조선족의 교육사적 특수성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들이 이어졌다. 특히 연변지역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독립운동 또는 민족해방운동의 연장선 내지는 일환으로 보는 견해가 압도적이었다.[9] 일부 학자들은 조선족교육을 역사적 맥락에서 정리하면서 그 특징이나 발전규칙을 확인하는 작업도 있었으나 성과는 매우 적었다.[10] 선행연구 검토결과 조선인들은 이주초기 어떤 교육적 의식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사회의 진보사상과 외래사상들과 어떤 맥락에서 통합되어 갔으며 그것은 궁극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표출되었는지 등 교육적 사실 혹은 현상 배후의 의식형태 또는 사상적 측면의 연구가 미흡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조선인들이 중국이주 정착 이후 진행한 수많은 교육적 활동 그 배후의 사상에 대한 고찰을 이주초기 즉 만주사변 이전이라는 시간과 연변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8) 박금해, 『일본의 동북조선족에 대한 식민주의 정책』,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08;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천경화, 『일제하 재만한인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1906년-1920년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88.

9) 대표적인 학자들로는 김주용, 이명화, 서굉일, 이시용, 윤병석, 천경화 등 한국 학자들이 있다. 이에 관해서는 김해영,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의 부록 1을 참고할 수 있다.

10) 손춘일, 「9.18사변전 조선족민족교육발전의 특점에 대한 연구」, 『민족연구』, 1992(5), 1992, 75~81쪽; 박태수, 「조선족교육발전의 역사적 특점과 기본 경험」, 『연변대학학보』, 36(2), 2003, 45~48쪽; 박금해, 「조선족백년교육의 이성적 사고」, 『연변대학학보』, 37(1), 2004, 30~33쪽; 노귀자, 「중국조선족교육발전탐구」. 『흑룡강민족총간』, 2008(2), 2008, 164~167쪽.

살펴보고자 한다.

이주초기 수십 년은 연변지역 조선인사회가 점차 형성되는 시기로 조선인들의 교육사상이 전통적인 봉건사상에서 근대적 사상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기이다. 또한 다양한 문화의 마찰과 충돌, 신구(新旧)·내외(内外)세력 간의 사상적 충돌과 융합의 시기이고, 나아가 공산주의사상과 민족주의사상 사이의 충돌과 융합의 시기이기도 하다. 조선인 교육사상은 바로 이와 같은 사상적 배경 속에서 형성된다. 따라서 이 시기 연변지역 조선인 교육사상의 형성과정에 대한 심층적 고찰, 특히 사상의 충돌과 융합의 과정에 대한 탐구는 연변지역 민족교육 발전의 근원을 파악하는 중요한 역사적 근거이다. 이는 또한 중국조선족 교육의식 형태의 형성과 변천과정으로 중국 조선족 특유의 색깔을 가진 교육사상이 형성될 수 있는 사상적 기저이며 당대 조선족 및 소수민족교육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현실적 의미를 가진다.

Ⅱ. 조선인 교육사상 형성의 역사적 배경

연변의 조선인은 대부분 함경북도 출신으로 이주초기 연변은 함경북도의 연장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곳이었다.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남안인 함경북도 사람들이 북안의 연변지역에 이주하여 정착영주하기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야 완성되었다. 크게 두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전기는 청(淸)이 관내(官內)로 진입하면서 두만강과 압록강 북안을 봉금(封禁)한 17세기 중엽으로부터 19세기 중엽까지의 약 200년간, 후기는 조선인들의 본격적인 이주 정착이 이루어져 연변지역에 조선인 마을이 들어서고 조선인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19세기 중엽 이후이다.[11] 함경북도 조선인들에게 연변지

11) 조선족의 이민사에 관해서는 손춘일의 『조선족이민사』(2009)와 김춘선의 『연변지역 조선족사회의 형성연구』(2001), 한국 현규환의 『한국유이민사』(1976)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역은 생명줄과도 같은 곳이었다. 그들은 이곳을 드나들며 채집, 사냥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진공(進貢)품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청초(淸初) 두 나라 변계의 확정은 조선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제한하였고, 연변지역은 함경북도 조선인들이 한없이 동경하지만 일단 범금(犯禁)만 하면 죄가 되는 곳으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의 이 지역 범월잠입(犯越潛入) 현상은 끊이지 않았다. 점차 초기의 채집 및 사냥활동에서 조경모귀(早耕暮归), 춘경추귀 (春耕秋归)의 경작 등으로 전환된다. 결국 1860년대 이후 조선북부의 계속된 자연재해와 날로 심해지는 조선왕조의 봉건적 압박착취를 피해 조선인들은 이주정착을 목적으로 연변지역으로 본격적인 이주를 시작한다.[12] 이때로부터 만주사변 이전까지의 연변지역은 다양한 사상의 끊임없는 충돌과 마찰이 일어나는 복잡한 시기인바 여기서는 주로 이 시기를 중심으로 조선인들의 이주 및 교육활동을 살핀다.

1. 사람과 문화의 이식(移植): 연변 조선인공동체 형성

1) 사람의 이식: 조선인의 이주 단계

19세기 중엽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함경북도 조선인들의 연변이주는 이주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배경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시기와 계층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9세기 중반으로부터 말기까지 함경북도의 사회최하층 농민들의 대량적인 이주시기, 연변지역의 조선인촌락의 기반이 형성되는 시기이다. 당대의 사회적 배경과 이주민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즉, 1880년대 이전의 범월잠입정착 및 청나라의 엄금시기와 이후의 자유이민, 이민실변(移民實邊)시기이다. 1860~70년대는 조선인들이 몰래 강 건너 연변지역에 들어와 개간을 하던 시기이다. 이때의 연변지역은 아주 오랫동안 청나라의 관리만 있고 백성들이 없던 곳이었다. 사람이 적고 초목

12) 윤정희, 「간도개척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 1991, 14~29쪽.

이 무성한 원시림과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처에 개척할 땅이 있었다.[13] 1866년 경원 아산(阿山)의 윤재관 등 75명이 훈춘(琿春)으로 이주하였고 1869년에는 경흥 아오지의 한개 촌 19호가 집단이주를 하였다.[14] 1867년 1월 훈춘하구를 순찰하던 중국 지방관원이 조선인 남녀 200여 명이 중조변경지대로 이주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같은 해 3월에는 1000여 명이 그곳에 정착하였다.[15] 1886~1887년 무렵 두만강 북안의 조선인촌락은 무산(茂山)대안에 140호 가량, 회령(會寧)대안에 수 백호, 온성(穩城)대안에 100호, 경원(慶原)대안에 10호 가량, 종성(鐘城)대안에 천여 호가 되었다.[16]

비슷한 시기 러시아의 동북지역 침입으로 다급해진 청 정부는 변방 방어를 강화함으로써 외세침점을 방지고자 관내의 한족들을 이주시켜 변방을 수호하는 정책을 펼쳤다. 말하자면 이민실변정책이다. 당시 연변지역 관리였던 오대징(吳大徵)은 여러 차례 산동의 여러 곳에 사람을 파견하여 변방에 이민할 농민들을 모집하였지만 한족들은 이곳까지 오는 것을 매우 꺼려하였다. 부득이한 상황에서 청은 조선인들이 이미 연변지역에 모여살고 있는 기정사실에 근거하여 연변정착 및 경작 조선농민들을 모집·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로써 수백 년의 봉금정책은 풀렸고 1885년 청은 두만강 북안의 길이 700리 넓이 50리의 화룡욕(和龍峪) 지역을 조선농민들의 개간구역으로 정하면서 조선농민들의 이주를 장려하기 시작하였다.

두 번째 시기는 19세기 말 20세기 초, 함경북도 지방유지(有志)들의 의식적인 이주와 함께 연변 조선인사회의 초보적 형성시기이다. 이주한 지방유지들의 사상적 연원과 활동행보를 보면 대개 두 부류 나눌 수 있다. 즉, 실학사상을 근원으로 하는 명동(明東)유지들[17]과 위정척사사상을 근원으로 하는

13) 손춘일, 「연변조선족집거지역의 형성 연구」, 『민족연구』, 1990(1), 84~93쪽.
14) 김춘선, 『연변지역 조선족사회의 형성연구』, 중국 장춘: 길림인민출판사, 2001.
15) 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연변교육사』, 서울: 논장, 1989, 3쪽.
16) 김해영, 『20세기 초 연변 조선족교육사상 연구』, 중국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14, 86쪽.
17) 김해영, 「북간도 명동오현의 교육사상적 연원」, 『민족문화논총』 58,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4, 491~517쪽.

연길 동구(東溝)의 유지들[18]이다. 김약연(金躍淵)을 핵심으로 하는 명동유지들은 함경북도지방의 반봉건운동에 호응하여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하였었다. 운동이 실패하게 되자 1899년 새로운 이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염원을 가지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 네 가문 142명이 함께 연변지역의 명동으로 집단이주하였다. 김정규(金鼎奎)를 중심으로 하는 연길동구유지들은 조선국내 유림의 보국안민 의병운동에 가담 및 지방에서 조직하였다가 실패하게 되자 1909년 근거지를 연변지역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주를 단행했다.

세 번째 시기는 1905년 을사늑약 이후 1910년 한일합방을 계기로 만주사변 이전까지이다. 연변지역이 조선인 해외독립운동의 가장 중요한 기지로 부상하면서 수많은 조선인들이 일제의 통치를 피해 이주하고 수많은 민족 지사들이 다녀가던 때가 바로 이 시기이다. 이상설, 이동녕 등 독립운동가들이 있는가 하면 정재면, 이동휘 등 독립운동 및 종교 활동을 동시에 진행하던 민족지사들, 안중근 의사 등 수많은 독립지사들이 이곳을 독립운동의 기지로 삼고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다녀갔다.

2) 문화의 이식: 다양한 문화 내용

연변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조선인들의 이주는 최하층의 서민계층으로부터 사회의 상위계층까지 아래로부터 위로의 이주이다. 둘째, 농민계층을 위주로 이주하였다. 셋째, 가정, 가족, 마을을 단위로 집단적으로 이주하였다. 넷째, 이주 전과 후의 생활양식이 대동소이하였는바 주로 농경생활 중심이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문화들이 이식되었다.

첫째, 농경문화의 이식이다. 초기 연변지역 조선이주민들은 청나라 관원들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오지나 산간지역을 찾아 숨어들어갔으므로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출신지역인 함경도의 정신문화생

18) 김해영, 「용연 김정규의 교육사상 연구」, 『교육사상연구』 27(2), 한국교육사상연구회, 2013, 23~42쪽.

산문화·민속문화 등을 이주지역에 이식하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농민계층 위주로 집단적 이주를 강행, 게다가 연변은 거의 무인지대였으므로 그들의 이주는 결과적으로 조선에서의 문화를 그대로 연변지역에 이식하는 계기가 되었다.[19] 이주민들의 대부분이 농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들은 일차적으로 조선에서의 생산문화를 이곳 연변지역에 이식시켰다. 황무지를 개척하는 방법, 수전을 푸는 방법, 벼농사를 하는 방법 등이 그것이다. 1881년 청은 대규모의 조사반을 연변지역에 파견하여 조선이주민들의 정착과 개척 상황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조사결과 가야하 하류로부터 고령진까지의 두만강 북안의 한황지(旱荒地) 8개 처에 조선인들은 적어도 2000여 정보의 토지를 개간, 훈춘현의 흑정자, 인우하, 두만강하류 어구 등 지역 역시 조선인들에 의해 이미 1000여 정보의 토지가 개간된 상황이었다.[20] 1921년에 이르러 연변지역에 6605정보의 논을, 1926년에는 연변지역 4개현에 조선인에 의해 경작되는 수전이 81854정보에 달했다.[21] 용정현지(龍井縣志)에는 조선인 농민들이 자비로 수로를 파 관개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1906년 용지사 대교동(현재의 용정시 지신진 신화촌)의 14호 조선족농민들이 자비로 2418미터의 물도랑을 파서 105무의 논을 관개하였다"고 했다.[22] 이와 같은 사실들은 조선인들의 이주와 함께 조선인들의 농경문화가 거의 그대로 연변지역에 이식되었음을 반영한다.

둘째, 지방교육문화의 이식이다. 이주민 공동체가 기틀을 갖추자 곧 자녀교육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조선인들이 정착하는 곳마다 서당이 생겨났고 새로운 이주민들의 이사자리 선택에서는 의례 교육의 기회가 많은 곳이 우선

19) 다양한 문화들이 이식되었는데 현재도 직접 확인 가능한 것은 가옥일 것이다. 두만강변의 여러 마을에는 아직도 백년이상의 가옥들이 남아 있다. 용정시 삼합진의 백년가옥, 도문시 월청진 백년부락의 130년 된 가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 가옥들은 대부분 기와로부터 기둥까지 모든 것을 조선에서 가져와 지은 것인 바 그 구조 역시 조선의 것과 일치했다.

20)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서울: 백암, 1973, 18~19쪽.

21) 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 앞의 책(1989), 6쪽.

22) 용정현지방지편찬위원회, 『용정현지』, 연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4쪽.

이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명동촌의 세 서당, 즉 김약연의 규암재(圭巖齋), 김하규의 소암재(素庵齋), 남위언의 오룡재(五龍齋)인데 바로 그들 이주 이듬해인 1900년에 곧 교육을 시작한다.[23] 그런가하면 김정규(金鼎奎) 역시 1909년 이주하자마자 곧 회양재(回陽齋)를 열어 학생들을 가르쳤다.[24] 이주민들이 거의 생계와 맞먹게 교육을 생각해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출신지인 함경북도 지역의 교육문화가 이식된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명동출신 김신묵의 회고에서 함경북도의 교육열의를 확인할 수 있다.

> 함경북도 어느 마을이건 골목을 지나가노라면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온다. 함경도에서는 사람(남자)이라면 누구나 제 이름 석자는 쓸 수 있어야 하고 제사 때는 축문 정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한다고들 생각했다. 여자들도 언제 배웠는지 언문은 다 읽고 쓸 수 있었다. 고만네(김신묵)의 어머니도 언문을 알고 딸들에게도 배우라고 은밀히 말하곤 했다. 양반이 아니어도 남자아이들은 누구나 글을 읽고 배웠다.[25]

이것이 곧 십 수 호만 모이면 서당을 차려 교육을 하고 산간벽지 사람의 발길이 닫지 않는 곳에 자리 잡았을지라도 교육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연변지역 조선인들의 교육정신이었다.

셋째, 종교문화의 이식이다. 20세기 초 연변조선족사회가 기본적인 기틀을 갖추게 되자 곧 다양한 외래문화들의 영향이 이곳까지 미치게 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외래문화가 곧 천주교, 기독교로 대변되는 종교문화이다. 선교사들의 왕래와 복음서의 판매는 이러한 종교문화가 연변지역에 이식되는 중요한 통로였다. 그런가하면 외래종교문화에 상응한 대종교나 천도교와 같은 조선본토 종교문화 역시 연변지역에 이식된다.

넷째, 애국애족의 정신문화의 이식이다. 1905년 을사늑약의 체결을 계기

23) 문영미, 『나의 할머니 김신묵의 살아온 이야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21쪽.
24) 『김정규일기』 권3, 1909년 11월 15일자. 「名其齋曰回陽.」 독립기념관 영인본.
25) 문영미, 앞의 논문(1997), 16쪽.

로 조선반도 내에서의 구국독립운동이 어려워지자 수많은 애국지사들은 당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 연변지역으로 들어온다. 그들 대부분은 조선의 지식인들로 문화의 상류층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의 연변지역 유입은 연변지역에 애국애족의 민족주의 정신문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2. 교육과 이주 조선인: 이상적 삶의 통로

조선인들에게 교육은 매우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 교육은 이주조선인들의 문화적 유전자이다. 이주조선인들의 교육적 노력은 이주와 함께 시작된 것이 아니다. 그들의 출신지인 조선이라는 나라는 500년의 역사를 영위하면서 줄곧 유교적 사상과 문화를 기반으로 사회질서와 신분체계를 유지해 왔는바 공부를 통한 출세의 관념이 매우 뿌리 깊었다. 교육은 신분상승과 개인의 운명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통로 중 하나였다. 교육에 대한 그들의 추구는 일종의 신앙과도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교육에 대한 추구와 신앙은 신분의 높고 낮음과 중앙과의 거리적 원근에 따라 부동한 의미를 지녔다. 즉, 양반귀족에게 교육은 통치 권력을 계승하는 직접적인 경로였지만 멀리 변방의 서민들에게 교육은 단지 일종의 이상일 뿐이었다. 따라서 교육에 대한 변방민들의 무한한 투입은 사실상 후대에 대한 무한한 기대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겠다. 그들의 교육에 대한 집착은 변방 오지에 귀양오는 유배인에 대한 남다른 교육적 친화력에서 잘 확인된다. 이를테면 유희춘(柳希春)은 함경북도 북변에 유배되었을 때 속몽구(續蒙求)를 지어 선비들을 가르쳤는데 『선조수정실록』에서는 유희춘의 가르침으로 인해 글을 배우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했다.[26]

> 메마른 토지에 씨앗을 뿌리는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서울에서 귀양 온 선비

26) 『선조수정실록』 권 11, 10년(1577) 5월 1일자: 「其在謫也. 處困若亨. 惟覃思著述. 口誦手抄. 夜以繼日. 塞俗少識字者. 因希春敎誨. 士多學文. 自此始.」

> 들이었다. 삼수, 갑산, 무산, 회령, 종성, 경흥, 경원으로 이어지는 귀양길마다 서당이 생겨났고 향학열에 불타는 함경도사람들은 선비들로부터 학문을 배우고 개혁사상을 접하게 되었다. 귀양 온 선비들의 비판적인 생각과 천민들의 반골기질이 한데 어우러지면서 관북 실학사상이 생겨났다.[27]

이상 명동출신 김신묵의 회고처럼 오랜 기간 유배인들의 영향과 지방민중들의 교육에 대한 갈망이 한데 어우러져 함경북도 특유의 교육문화를 만들어냈다. 이 같은 문화적 유전자가 연변에서도 자연스레 발현하였던 것이다.

둘째, 이주 조선인들에게 교육은 생존과 자기보호를 겸할 수 있는 일종의 신앙이었다. 연변에 이주한 조선인들은 문화이식과 문화적응 과정에서 현지의 자연환경 또는 사회환경과 마찰을 겪게 된다. 이를테면 자연환경이 다름으로 인한 풍속 또는 민속의 변화, 토지소유권문제, 귀화입적(歸化入籍)에 대한 압박문제 등 사회환경에 대한 고민 등이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들은 무지의 두려움을 자각했고 그것은 곧 배워야 함을 의식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결국 이주 조선인들은 교육을 통해 문화이식과 전승을 완성하였고 또한 연변의 환경과 중국의 문화 속에서 생존과 자기보호를 완성할 수 있었다. 그들은 교육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셋째, 교육은 연변지역 조선인으로 하여금 민족의 동화와 식민통치를 극복하면서 민족해방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경로였다. 1905년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찬탈하였고 1910년 일본은 완전히 조선을 병탄하였다. 조선민족의 주권회복을 위한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바로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동북지역이었다. 연변은 당시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조선반도 외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교육을 통해 실력을 양성함으로써 교육구국운동을 활발히 진행하였다. 그 일환이 바로 사립학교 설립운동이다. 1906년 용정에 설립된 서전서숙을 비롯해 명동, 정동, 창동, 광성 등 사립학교들은 근대 지향적이면서도 민족주의를 지향하고 있었다. 유년필독(幼年必讀), 오수불망(吾讎不忘), 월남망국사(越南亡國史), 동국사략(東國史略), 신찬창가

27) 문영미, 앞의 논문(1997), 16쪽.

집(新撰唱歌集) 등 교과목들은 특히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28] 이러한 교육의식은 저항적 민족주의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것인 바 이는 일종의 민족자각의식이다.

넷째, 교육은 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였다. 그들은 이주, 정착과 공동체 형성의 과정에서 무지(無知)로 인한 두려움을 겪었으며 무지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위기의식은 그들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각종 교육실천을 시도하도록 촉구하였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위기의식은 내부에서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외부적 충격이나 자타의 충돌이나 마찰이 있을 때에야 만이 생성되는 것이다. 그 충격과 마찰이 생존을 위협할 경우 그것은 자연스럽게 새로운 자각의 생성 동력이 된다. 조선인들은 기타 민족과 달리 특정한 종교 신앙체계가 없다. 그들이 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들은 이주하여 문화적응을 하는 과정에 다양한 문화적 충격과 마찰을 겪으면서 그 유일한 대책으로 교육을 선택하였다.

Ⅲ. 조선인 교육사상의 형성 과정

1. 이문화간의 마찰과 충돌: 교육의식의 생성

함경북도 변방에서 이루어진 조선인의 교육의식이 교육적 사회화를 중심으로 수동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면 연변지역으로 건너와 시작한 조선인들의 교육활동은 간단한 이식이나 수동적인 것만은 아니었다. 사람과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이식과정에서 현지 상황과 지속적인 마찰과 충돌,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포용과 융합의 노력들이 결국 조선인 특유의 교육의식을 만들어냈고 이는 훗날 조선족교육을 지원하는 사상적 근원으로 형성되었다.

28) 김해영, 앞의 책(2014), 207~217쪽.

1) 생존압박과 문화적 충돌에 따른 교육의식의 자생

이주 조선인들은 청인(淸人), 청(淸)문화와의 끊임없는 마찰과 충돌 속에서 교육의식이 생성되었다. 연변 조선인공동체 형성 초창기 조선인들은 비교적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때까지 중국인들에게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은 조선인들의 삶과 문화를 성공적으로 연변에 이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그러나 1880년대 이후가 되면 연변 역시 중국인들의 새로운 활동지역으로 물망에 오르고 그것은 적지 않은 중국인들이 유입되는 상황을 만든다. 한편으로 그들은 산과 땅을 점한 점산호인데 이들과 이주조선인들의 마찰은 역시 착취와 피착취의 관계이다. 조선인들은 점차 이들과의 마찰과 충돌 속에서 지혜를 만들어내고 그것은 점산호들에게서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였다. 그러나 조선인들은 토지소유문제로 인해 이번에는 중국정부로부터 강제적인 귀화입적(歸化入籍)의 요구를 받게 된다. 토지소유문제로 인한 중국정부와의 마찰과 충돌은 점차 심화되고 중국에서의 조선인들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대안적인 고민들을 하면서 지혜를 모으게 된다. 전체 마을 사람들 중 대표적으로 한 사람만이 입적을 하여 토지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공동체사람들의 조선인신분을 보호하는 노력이다. 이른바 전민제(佃民制)이다. 이렇게 공식적인 충돌과 마찰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지만 그럼에도 중국인들과 충돌은 비공식적으로 계속 지속되었다.

19세기 말 북간도 명동에 집단이주를 해서 자란 김신묵은 어린 시절 중국인들에 대한 기억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 "어린 시절 제일 지긋지긋했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은 중국인 거지들이 밥그릇을 채우라고 행패를 부리던 일이다. 원숭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원숭이가 오줌을 싸면 병이 난다면서 방바닥에 내려놓겠다고 협박을 해서 쌀을 빼앗아가는 것이었다. 삼사십 명이 무리를 지어 다니며 한곳에 2, 3일씩 머물면서 먹고 쌀을 내놓으라고 강요하고 주지 않으면 그냥 죽치고 있을 때도 있었다."[29] "함경북도에서 아직 이사를 하지 않았을 때는 양반들이 김교감 하면서

아버지의 서당에 와서 학생들에게서 쌀을 몇 말씩 걷어가곤 했는데 북간도에는 그런 양반들은 없었지만 함경도나 외지사람들이 나타나서 마구 훑어가곤 했다."[30]

이와 같은 충돌과 갈등은 오히려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애착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한다. 사실 중국인들과의 충돌과 마찰의 근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 불일치 또는 열세이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향학열을 두 가지로 촉발시켰다. 아는 것이 힘, 공부를 해야 산다는 개념과 중국어를 배워야 한다는 개념이다.

그런가하면 김신묵은 또 중국 사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고한다. "중국 사람들은 장사를 잘한다. 그 집 주인은 조선 사람들에게 외상으로 술을 팔고는 음력설이면 몽둥이를 들고 와서 외상값을 쌀로 받아가곤 했다."[31] 김신묵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중국인들의 방식은 일종의 문화적 충격이었음이 알려지는 대목이다. 중국인들은 팔 때는 정말 상냥하고 그저 줄 것처럼 외상을 편히 준다. 이는 중국인들의 일종의 장사수완이다. 이처럼 조선인과 중국인들은 각종 문화적 차이로 인해 갈등과 모순이 끊이지 않는다. 중국인과의 잦은 마찰, 수시로 피해보고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조선인들은 스스로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과 의식이 더욱 강화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교육의식으로 각성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각성은 강한 생존압박을 기반으로 형성되었는데 이것을 한편으로 강한 생활력과 인내력으로 극복하였고 한편으로는 교육을 통한 각성으로 극복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최소한도의 생활수요는 중국인의 그것보다 낮지만 중국인보다 인내력에 있어서는 지지 않았다. 최저 임금을 받고 살아감으로써 그들은 중국인

29) 문영금·문영미,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 서울: 삼인, 2006, 381쪽.
30) 문영금·문영미, 앞의 책(2006), 392쪽.
31) 문영금·문영미, 앞의 책(2006), 391쪽.

> 과 능히 경쟁할 수 있고 또 나아가 중국인의 위치를 탈취할 수 있는 까닭이다. 이 말은 확실히 옳은 말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기성 지주나 기성 정착인은 중국인임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국가적인 보호와 자국지라는 유리한 조건에 있는 중국인 사이에 신래(新來) 조선인은 갖은 편파적인 조건과 이국의 낯선 환경 하에서 거기다가 더하여 거의 맨주먹으로 떨어지게 된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만주 각 지역에서 초기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약자의 서러움과 고통 속에서 있었으나 이것을 잘 극복하여 나갔으며 차차 기반을 잡고 이러한 험지를 뚫고 나갈 수 있었다는 강한 생활력이 바로 그것이다."[32]

2) 생존지혜와 문화적응에 따른 교육의식의 자각

이주 조선인들의 강한 자기보호의식과 생존 및 적응을 위한 움직임으로 의식적인 교육활동이 시작된 것은 이주 정착이 한층 안정된 1890년대에 들어서서부터이다. 사실상 그들은 이주와 함께 교육적 의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 그들은 다만 먹고살기에만 급급하지는 아니하였다.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 그것이 그때나 오늘에 있어 우리 조선인의 굳은 신념 중 하나였다. 그리하여 물을 보면 반드시 수전을 이루는 것과 같이 아무리 벽지 궁항이라도 이삼십호만 모여 촌락을 이루게 되면 반드시 학교를 세우는 것이 의례의 행사였다. 그들의 자제교육열은 그렇게도 개척의 열에 지지 않으리만큼 불타고 있었다.[33]

교육에 대한 이주 조선인들의 강한 열망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특히 여기서 굶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은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말에서 그들의 교육에 대한 처절함이 가장 진실하게 반영된다. 이는 교육이란 생존과 맞먹는다는 뜻으로 교육에 생명력을 부여한 결과이다. 이와 같은 자식교육에 대한 의

32) 현규환, 『한국류이민사』 상권, 서울: 어문각, 1967, 358쪽.
33) 申瑩澈, 「재만조선인교육의 과거와 현재」, 『半島史話와 樂土滿州』, 新京: 滿鮮學海社, 1943, 431쪽.

식은 결국 공동체적인 합의를 보게 되었고 그것은 가정교육의식으로부터 공동체교육의식으로 빠른 전환을 가져오면서 공동체의 서당설립 또는 학교설립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여기서 말하는 '자식은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할 것이다. 가르친다는 것은 글공부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들은 모든 삶의 처절함을 글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글공부만이 생활을 개선하고 억압을 받지 않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심지어는 생존과 보호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의 생활상과 문화를 전승해야 할 필요성은 자각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이 역시 조선에서의 그것보다는 다소 진보된 모습이 아니었을까 판단된다. 조선에서 교육은 생활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자각할 필요도 반성적 태도를 가질 필요도 없었다. 무의식을 깨우는 자각은 반드시 외부적 충격이나 강한 다름에서 각성되는 것이다. 그들이 어렵게 선택한 중국에서의 삶과 그 삶을 지속적으로 흔들고 있는 중국인들과의 마찰에서 그들은 중국과 그들 자신의 강한 다름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의식은 스스로를 확인하고 돌이켜보는 매우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사실 앞서 제시한 명동이야기에서 김신묵이 명동에서의 삶을 그렇게 잘 이야기할 수 있다는 자체가 기억도 기억이겠지만 그 기억은 자극을 통해 이루어진 잊히지 않는 기억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강한 자기보호와 생존을 위한 교육적 자각에서 비롯된 교육적 의식은 자각적 행위와 행위적 자각으로 표현되었다. 자각적 행위란 조선인들이 자녀를 서당이나 학교로 보내면서 "공부는 반드시 해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이념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행위적 자각이란 아직 의식은 하지 못했지만 자신들의 삶이 축적한 문화가 다름을 행위적으로 후손들에게 전승하기 시작한 표현이었다. 이른바 생산과 삶의 생활문화에 대한 전승을 말한다.

연변지역 이주 조선인들에게 교육은 늘 보다 이상적인 삶의 세계로 이끌어주는 구세주와 같았다. 이들은 교육을 통해 스스로를 자각했고 그 자각을

통해 또한 교육을 만들어갔으며 교육을 정신적인 지주로 공동체를 영위했고 심지어 교육을 주축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자 하는 노력까지 하였다. 그만큼 교육에 대한 그들의 신념은 매우 대단했다. 그래서 심여추의『연변조사실록』에서는 조선인들의 교육열의는 한족의 비해 열배는 높았다고 말했다.[34] 조선인들에게 교육이라는 것은 종교적 신앙에 맞먹는 믿음의 존재이고 신념의 반영이었던 것이다. 왜 그랬을까?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교육을 자각하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하게 되었을까? 이주하기 전 그들이 자각을 한 것은 살기 위한 적극적인 이동의 노력이었다면 그 이동의 결과는 왜 교육과 연결되었을까? 일련의 물음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주 조선인들의 교육에 대한 생각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조선인들이 이주생활을 영위하면서 처음부터 교육이라는 두 글자를 논의하면서 고민을 했겠느냐마는 그들은 분명히 배워야 함을 의식했고 배우지 않으면 생존마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위기의식을 전제로 교육적인 실천들을 해나갔을 것이다. 이른바 앞서 말한 행위적 자각인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강한 외부적인 충격이나 그 충격으로 인한 마찰을 기반으로 생성되는 것으로 그것이 생존을 위협할 때면 그 방편으로 새로운 자각을 하게 마련이다. 조선인들은 전민적인 신앙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이 바로 교육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들은 오직 교육이야 말로 다양한 위협과 충격 및 충돌에 대처하는 양호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2. 사상의 충돌과 융합: 교육사상의 쟁명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병탄과 연변지역 조선인에 대한 간섭은 역시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스스로 나라를 떠난 것과 강제적으로 나라를 빼앗겼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조선인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34) 심여추,『연변조사실록』, 중국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87.

시세에 연변의 조선인들은 비교적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특히 일제의 연변지역 간섭이 통감부간도파출소를 세우는 등 다양한 실질적 움직임으로 되고, 조선인들이 그것을 지각적으로 확인하였을 때 그들이 받은 충격은 너무나 컸을 것이다. 그것은 준비된 상태에서 받은 중국인들과의 마찰에서는 오는 충격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것이었다고 봐야겠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적 변혁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늘 그러했듯이 다양한 사상들의 부각과 함께 진보적인 사상계열과 보수적인 사상계열의 갈등 및 그것을 통합하고자 하는 역량들이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등장하기 마련이다. 대개 이와 같은 사상계열들은 각자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입지와 주장 및 관점을 보급시키고 또 그것을 통해 정치적 또는 그 외의 목적이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한다. 20세기 초 연변지역의 사상들의 움직임 역시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의 수순을 밟았었다. 그 과정에서는 시종 충돌과 융합이 교차되어 있었다.

1) 교육사상의 과도(過度)와 승화: 신구사상의 격렬한 충돌

20세기 초 연변은 일단 전근대적 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사상적인 측면에서도 전통사상과 근대사상 간의 모순이 격렬했던 시기이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다양한 사상들이 그 나름대로의 입장에서 당시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던 민족해방이나 독립운동 및 구국에 대한 주장들을 펼쳤고 또한 교육활동을 통해 그러한 사상들을 관철 및 실행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사상계열들의 모순과 갈등이 점차 수면위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대립은 크게 전통적 성향을 띤 보수파와 근대적 성향을 띤 진보파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당시 보수파는 연변지역에 이주한 위정척사계열의 유림들로 김정규를 중심으로 하는 의병들이었다. 그들은 중화민국초기 농무계(農務契), 사우계(師友契), 공교회(孔敎會) 등 사회단체 및 교육기관들을 통해 활동하였다. 그런가하면 진보파는 실학사상을 계승한 김약연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이주민들

로서 시대적 흐름에 맞게 새로운 사상 즉 기독교나 천주교 및 애국계몽사상 등을 적극 수용하여 근대적이고 신식인 학교교육관들을 통해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의 사상은 당시 전반 한민족의 공동의 적인 일본에 한해서는 모두 민족주의 배일사상을 고취한다는 점에서 일치하였다. 하지만 이주국가였던 청나라 또는 민국정부에 대한 태도에서는 크게 대립되었다.

진보파들은 "치발역복(薙髮役服)", "귀화입적"에 대해 연변이라는 조선인들이 피와 땀으로 개척한 땅에 대한 권리와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면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따라서 실사구시적으로 이주 조선인들에게 이로운 일이나 사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자강을 준비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보수파들은 "치발역복", "귀화입적"을 민족에 대한 배신, 나아가 매국으로 보고 신식, 근대식 교육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을 극구 반대, 유교적 성리학 중심의 위정척사적 의리론을 주장하였다. 결국 양측은 각자 단체들을 조직함으로써 교육, 집회, 청나라 관리와의 교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세력을 확보해나갔다. 그러면서도 민족, 독립, 반일에 대한 정신의 고취에서만큼은 모두 견결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양측에서 조직한 사회단체들이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고 사회적 위치가 확보되자 급기야 정면충돌로 이어져 각 지역의 조선인들이 모두 주목하는 큰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그들의 사상적 충돌은 대개 입적(入籍)문제에서의 충돌, 사숙개량에 관한 내용에서의 대립 등이었다. 김정규는 그의 일기『야사』에서 간민교육회 등 진보단체에 대한 태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이날 저녁 모범학교(模範學校)의 권학원(勸學員)이라는 직함의 정(鄭)씨와 홍(洪)씨 두 사람이 마을에 와서 마을의 노인들에게 엄포를 놓으며 부유한 주민 중 자식이 있는 사람은 강제로 입학시키라고 하였다. 하지만 우리 접생(接生) 중 태반은 그 안에서 곤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나는 문 밖으로 나가 스스로 탄식하며 말했다. "우리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인가? 저들은 어째서 이렇게 심하단 말인가? 비색함과 태평함에도 정해진 이치가 있으니 분명 소장(消長)하는 때가 없는 게 아니다."[35]… 이날 국자가(局子街)에 가서 여러 친구들을 방문하고 학교의 일에 대해 물으니, 모두 단발(斷髮)한 놈들이 세력에 기대 이득

을 구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라고 했다.[36]

이는 당시 양쪽 사회단체의 사상적 대립을 잘 보여주고 있다. 간민회를 중심으로 하는 진보파 인사들은 형세에 부합되게 정치적으로 중국의 인정과 지지를 받아 일본을 반대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을 주장, 사상적으로 민주와 유신을 숭상하여 보수 및 복고를 반대하였다. 그들은 연변 이주조선인들이 중국국적을 취득함으로써 합법적인 권익과 평등한 국민자격을 가질 것을 바랐고 조선이주민들이 자신들만의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간민교육회나 간민회와 같은 사회단체의 성립은 그들의 이러한 염원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김약연이 도빈(陶彬)에게 제출한 건백안(建白案)에서 그 사상이 보다 잘 드러났다.[37]

간민회는 바로 이와 같은 사상을 학교의 설립과 학생들의 모집을 통해 한층 더 확산시키고 굳혀나갔던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수파들은 아주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고 반대가 심하였다.

> 요즘 머리 깎고 신식공부를 했다는 아무개 등이 중국관리에게 아첨하느라 간민회(墾民會)라는 단체를 설립하여 우리 백성들에게 권하여 중국에 호적을 올리라고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신식 공부했다는 놈들이 우리 종족을 멸망시키고자 함이 과연 이와 같은가. 그들은 우리 민족을 보호하고 장차 우리의 국권(國權)을 되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 간민회(墾民會)를 설립했다고 감히 큰

35) 『김정규일기』 권8, 1912년 2월 13일자. 「是暮模範學校勸學員爲名者鄭·洪二姓人來於村中, 恐喝里老使饒民有子者, 强制入學, 而凡我接生太半罹在其中. 余出門自嘆曰, 吾敎非耶, 彼何如是之甚也. 否泰有理, 必不無消長之時也.」 독립기념관 영인본.

36) 『김정규일기』 권8, 1912년 2월 14일자.「是日也往于局子街訪諸友人問學校事, 則皆薙髮輩挾勢求利之致也.」

37) 이 건백안은 간민회 회장 김약연이 중화민국 2년 (1914) 11월 20일에 길림(吉林) 동남로(東南路) 관찰사 도빈에게 제출한 것이다. 그 주요내용은 조선인 토지소유권에 대한 절박한 염원과 지방정부에서 조선인들의 토지 매매를 허락해줄 데 대한 요구 및 변강민으로서의 조선인들은 이미 연변을 제2고향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제기하였다.(강룡범, 『근대 중조일 삼국의 간도조선인에 대한 정책 연구』, 중국 목단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0.)

> 소리치고 있다. 간민회는 바로 한인회(韓人會)이다. 이 한인회라고 이름을 지었으면서 우리 백성을 중국 백성으로 변화시키려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머리를 묶어 상투를 틀고 흰 옷을 입는 것은 본래 우리 민족의 제도이다. 지금 머리를 깎고 검은 옷을 입으며 같은 언어를 쓰고 풍속을 같게 한다고 한다. 과연 이렇게 한다면 한국사상(韓國思想)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한국사상이 없어질 것 같으면 장차 우리의 국권을 되찾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너무 심한 말이다.[38]

결국 보수파와 진보파 사이의 갈등과 모순은 마침내 정면충돌을 일으켜 일대 소란(騷亂)으로 이어졌다. 1914년 1월 7일에 일어난 이 소란에 대해 『권업신문』에서는 자세한 상황을 소개하였다.[39] 결국 근본적인 대립원인은 그 어떤 다른 원인이라기보다 일본인의 개입으로 인한 오해와 일부 간첩들의 이간으로 발생한 모순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전통사상과 근대사상이라는 거대관점에서의 차이가 바탕에 깔려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단순한 관점차이였다면 양 사상의 융합은 다만 시간적 문제였을 것이다.

2) 교육사상의 선택과 실천: 내외사상의 점차적 융합

1910년대 연변지역에는 다양한 세력들이 침투되어 있었는바 크게는 중국 세력, 일본 세력,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세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이미 형성된 연변조선인사회를 대상으로 세력 확보를 하기 위한 교육적 노력들을 하였다. 중국의 경우 적극적인 동화정책과 유인정책을 펼치면서 관립학교 설립을 통해 조선인을 확보하고자 했다. 일제의 경우 보통학교설립을 통해 식민주의사

---

38) 『김정규일기』 권9, 1913년 6월 14일자. 「近日誰某薙輩, 求媚於華官, 爲立墾民會, 勸吾人, 誘入民國籍, 而來十七日, 卽總會日也. 余與潭旣聞痛嘆曰, 薙輩之欲滅我人種, 果若是耶. 彼敢大言曰, 乃保護我民族, 將挽回我國權, 故立此墾民會云. 墾民會, 卽韓人會, 其是韓人會, 則欲使韓人, 變爲民國民者, 何意耶. 束髮白衣, 本吾韓國之制, 而今焉薙髮黑服, 同言語, 共一風尙云, 果爾則韓國思想, 亦安在耶. 其無韓國思想, 則將挽回我國權云者, 欺人太甚之言也.」 한국독립기념관 영인본.

39) 『권업신문』, 1914년 2월 1일자, 「북간도 소란 경과에 대하여」. 한국독립기념관 영인본.

상을 관철시킴으로써 조선인을 확보하고자 했다. 독립구국 및 민족해방운동을 하는 조선인들의 경우 앞서 이야기했듯이 크게 진보파와 보수파로 나뉜다. 진보파의 경우 근대식 학교의 설립을 통해 애국계몽의 민족의식을 고취함으로써 반일, 항일의식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수파의 경우 전통 성리학을 통한 위정척사의 의리론을 서재나 서당교육을 통해 펼치면서 의병활동을 전개하고자 했다. 뿐만 아니라 천도교나 대종교와 같은 신생 민족종교계열의 사상 또한 교육을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었다.

기독교인이면서 공산주의사상을 가지고 있던 애국계몽사상계열의 이동휘는 오래전부터 여러 사상 계열의 통합을 위해 노력을 보여 왔다. 그 일례로 이동휘가 연변지역에 오자마자 김정규에게 편지를 보내 단합할 것을 제의한다.

> 거두절미하고, 구식이든 신식이든 똑같이 조국(祖國)의 동족(同族)입니다. 지나간 일은 따지지 말고 지금부터 단합해야 하니 지금은 실로 함께 소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삼가 많은 것을 알고 계신 고명(高明)의 가르침을 받고자 하여 이렇게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8월 18일 낮 12시 경에(음력 7월 17일) 국자가에 있는 길신(吉新) 여학교에 당도하여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40]

이처럼 이동휘는 신구(新舊)세력을 통합하고자 하는 의지와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는 1913년 9월 22일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확인된다. 편지에서 그는 북간도 형편은 어려운 중에도 준비가 잘 되어 각 학교마다 학생이 100여 명씩 된다, 자신은 10개월 전에 훈춘에 와서 여러 지방을 순행하며 급진당들을 단합중인데 매우 희망적이라는 소식, 2주일 후에 해삼위로 가서 분쟁을 조정하려 한다고 했다.[41]

---

40) 『김정규일기』 권9, 1913년 7월 11일자. 「是午耶蘇敎首人李東輝, 自本國來, 在局子街, 爲書來至. 其略曰, 蔽一言, 曰舊曰新, 均是祖國同種也. 旣往勿追, 自今爲團合, 則實爲共同蘇息之秋也. 恭欲承高明顯達之誨戒, 玆庸懇告. 今八月十八日午點鐘,-陰七月十七日-駕臨于局子街吉新女學校, 硏究方策云云.」 독립기념관 영인본.

41) 『이동휘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1913년 9월 22일자,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정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1910년대 연변지역은 다양한 사상 계열의 정립(鼎立),각자 자기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었다. 그러한 사상들은 교육사상으로 승화되어 학교 및 사회단체들을 통해 널리 보급되는 상황이었다. 각 사상계열이 배일, 반일 등 사상 맥락에서 통합되어 반일사상과 반일활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김약연, 이상설, 이동휘, 정재면 등 진보인사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3. 결정적 사상 간의 충돌과 융합: 교육사상의 선택

1920년대 초의 연변은 마르크스주의의 전파로 인해 공산주의사조가 매우 빠르게 수용되던 시기이다. 공산주의사상 역시 학교교육을 통해 매우 빨리 전파될 수 있었다. 이 시기 연변지역에는 기본적으로 세 맥락의 교육사상이 정립하는 국면을 맞이하였다. 식민주의 교육사상이 여전히 창궐하였고 순수 민족주의 교육사상이 사립학교설립운동과 함께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다. 공산주의사상의 신속한 전파는 기존의 사상을 영향 주었고 민중들의 교육의식 또한 매우 고양된 상황이었다. 사실 민족주의 교육사상이든 공산주의 교육사상이든 일제식민통치의 도탄에 빠진 민족과 일제의 간섭을 받고 있는 국운을 교육을 통해, 사상적인 움직임을 통해 구해보고자 하는 것은 동일했다. 한마디로 일제의 식민주의 교육사상에 대응하기 위함이라 하겠다.

1) 민족주의 교육사상의 형성

20세기 초의 연변에는 다양한 계열의 사상들이 유입된다. 우선, 함경북도 지역 유지들로 이루어진 관북실학계열의 사상이 유입된다. 이들은 조선후기 성리학의 거장인 송시열의 학통이 최신을 통해 관북지역에 전해지면서 종성을 중심으로 하는 오룡천 오현에 이어져 형성된 사상계열이다. 오룡천 학자들은 강한 현실적 요구로 실학사상을 수용하고 이주 이후 실학사상의 근대

보시스템 자료.

지향적인 전환과 함께 기독교사상을 수용하여 민족주의 교육사상으로 융합시킨다. 따라서 그 특징은 시류와 부침에 유연성과 융통성이 있는 대응으로 전통사상을 계승하면서도 근대적인 사상에 대한 비판적 수용을 점진적으로 병행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전통사상과 근대사상 및 외래사상의 적절한 조화로 이루어진 교육사상은 연변지역에 유입되는 다양한 사상들을 유기적으로 통합시킴으로써 이들 민중들의 자생적 민족의식과 중재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면 "관북실학은 현실인식을 철저히 사회과학적으로 규명한 변혁사상"[42]이라 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관북 경성학통의 영향을 받은 의병계열의 위정척사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의리론적 민족주의사상이다. 김정규를 통해 연변지역에 전해진 이 사상계열 역시 17세기 이후 성리학의 함경북도 정착으로 형성된 학맥에서 연원된다. 하지만 이러한 학맥은 전통사상을 고수함으로써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한 의병활동으로 이어져 연변에 유입된다. 민족의 정신과 의식을 의리론적 시각에서 전승하고자 하면서 반외세적인 성향을 띠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는 전통적인 사상에서 파생되는 민족주의의식의 한 부분으로 결국 민족주의교육사상에 합류된다. 특히 이러한 반외세적인 성향은 일제에 대한 저항은 물론 청나라나 중화민국으로의 귀화입적을 강하게 반대함으로써 보수적인 민족주의 성향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의병은 군주중심의 근왕적 성격을 표출하였으나 연변지역의 의병은 자강주의적 개화세력과 연계를 맺으면서 민족적, 민중적 성격과 함께 국민국가체제를 지향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전통적 유림의 성리학적 사상으로 민족의 해방을 기하고자 한 것이다.

셋째는 종교사상으로서의 민족종교사상이다. 당시 연변지역에 유입된 민족종교사상은 대종교와 동학계열의 천도교 등이었다. 이들의 경우 이미 한반도 내에서 활발한 항일운동을 해왔었다. 그들의 연변지역 이주는 분명한 민족독

42) 서굉일, 「일제하 서북간도에서의 민족해방을 위한 역사교육」, 서굉일 외, 『간도사신론』 상,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1993, 132쪽.

립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러한 민족종교들은 을사늑약과 한일합방을 계기로 한반도내에서의 활동이 제한을 받자 그 근거지를 연변지역을 비롯한 해간도 지역으로 옮긴 것이다. 이로써 이주와 함께 각자의 교리와 특징적인 학과목을 통해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관철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민족종교가 민족주의 교육사상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실력양성을 통한 민족의 자강과 독립을 기한다는 직접적이고도 뚜렷한 목표였다고 할 수 있다.

넷째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외래종교사상이다. 외래종교사상은 선교사들의 직접적인 선교와 한반도내의 선각자들의 기독교 수용 그리고 그들의 연변 망명으로 인한 유입 두 방향으로 전개된다. 연변지역에서 수용한 기독교사상은 단순한 신앙적인 의미를 넘어서 늘 민족과 연결, 교회와 학교는 의례 민족운동의 본산지로 되었다. 그것은 일제의 이목을 피해 민족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안전한 방패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연변지역의 기독교계통의 학교들은 대부분 반일의식을 가진 학교들이었으며 이로부터 기독교사상이 민족주의 교육사상으로 융합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신민회와 서북학회 계열의 애국계몽의 민족주의상이다. 1910년 조선의 경술국치를 전후로 서북학회와 한북흥학회, 신민회의 회원들은 교육구국운동의 기지를 만주지역으로 옮겨 민족운동을 전개하였는데 그들은 철저히 민족주의사상을 지향하였다. 이동휘, 계봉우, 이상설, 이상룡 등은 본격적인 민족교육계획을 세운 후 만주지역에 이주하여 민족해방을 위한 민족교육기지를 건설하였다. 그들은 다양한 사상의 유입으로 인해 혼란스럽고 모순과 갈등으로 사상적 통합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던 당시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이주조선인들의 사상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러한 교육사상들은 전통사상이든 민족종교사상이든 외래종교사상이든 모두 연변지역 조선인들의 이주정착과정에서 타민족과의 갈등과 모순 속에서 형성된 민중의식에 기반을 둔 이주민 내부의 자생적 교육의식을 전제로 한다. 즉 연변지역 민족교육의 사상적 바탕에는 조선왕조를 거쳐 형성된 피차별의 설음과 이주민사회에서 타민족과의 갈등과 모순에서 오는 자기의식,

그리고 외세로부터 오는 고난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변혁사상이 깔려 있다. 조선인 교육사상은 바로 이를 기반으로 우로부터 오는 애국계몽사상과 조화되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융합의 과정에서 민족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새로운 방안들이 모색되었고 민족 및 민족해방의 염원을 전제로 연변지역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이 기본적인 완성을 이루어 간 것이다.

2) 민족주의 교육사상과 공산주의 교육사상의 갈등과 융합

1910년대 연변지역에서 다양한 사상들의 통합을 통해 형성된 조선인들의 민족주의 교육사상은 1919년 조선의 3.1운동에 따른 연변지역 3.13운동과 함께 고조에로 치닫게 된다. 그런데 1920년대 연변에는 마르크스주의 사상이 급속하게 전파되면서 일부 학교들에서는 순수 민족주의만을 고집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을 보이기 시작한다. 기독교사상을 기반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던 김약연의 경우 마르크스주의의 사상에 기반을 둔 공산주의사상을 완강히 거부한다. 결국 그는 학생들과 대립하게 되었고 마침내 교장 직을 그만두고 학교를 떠나게 된다.[43] 이는 1920년대 용정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족학교들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이념적 대립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런데 민족주의사상과 공산주의사상의 대립은 공동의 적인 일제의 식민주의사상의 침투가 확대되고 노골적으로 드러나게 되자 서로 포용하고 뭉치게 된다. 공산당은 연변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민족지역 조선족인민들의 평등한 권리를 보장해주었다. 1928년 “중국공산당 제6차 전국대표대회 민족문제에 관한 결의안”에서는 공산당의 조선족문제에 대한 원칙과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였는바 만주지역의 조선인들은 모두 중국경내의 소수민족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였다.[44] 조선인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였으며 민족구역자치의 실행을 허락하였다. 조선인들의 토지문제를 해결해주었고 조선인과 단결하여 함께 항일구국운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였다. 또한 조선인 무장단체

43) 서대숙, 『김약연』. 서울: 역사공간, 2008.
44) 박금해, 앞의 논문(2001), 23쪽.

와 함께 항일무장투쟁을 진행, 조선인 간부를 적극 양성하였고 조선인의 문화교육과 언어문자의 발전을 지원하였다.[45]

1920년대 연변지역의 조선인들은 1910년대 만들어온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공산당의 다양한 민족정책의 혜택과 결합하여 진정한 민족주의 사상과 공산주의사상의 합의점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 이는 이주 조선인 교육사상의 최종선택이자 그들만의 교육사상이었으며 조선인들이 중국 조선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 이 사상의 근원에는 물론 공산당의 적극적인 유인책, 1910년대에 걸쳐 형성된 민족주의 교육사상의 뒷받침이 있었고 공동의 타도대상인 일제의 식민주의교육사상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래로부터 형성된 이주 조선인들의 민족의식, 교육의식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일차적이고 매우 기초적인 것으로 이주초기 조선인 교육사상의 완성은 여기에서 시작되어 중국적인 특징을 갖춘 조선인 특유의 교육사상으로 향해 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결과적으로 이주초기 수십 년의 연변생활 가운데서 조선인들은 문화적응의식, 민족의식, 자치의식, 반일항일의식, 공산주의의식, 나아가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의식 등 점진적인 과정을 거쳐 자체적인 교육사상을 아래로부터 완성시켜 왔던 것이다.

Ⅳ. 결론

이주초기 연변지역 조선인 교육사상이 형성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특징을 이상 분석에 근거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조선인들의 교육사상은 자생적 교육력을 바탕으로 아래로부터 형성된 것이다. 만주사변이전 연변지역의 조선족인구는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였는데 그 가운데 95%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는바 그들은 대부분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였다.[46] 그들은 일차적으로 이주지

45) 박금해, 앞의 논문(2001), 23~28쪽.

역에 대한 문화적응을 위해 노력하였는바 그 문화에는 이주지역의 자연환경과 사회적 환경 두 가지가 포함된다. 근로 용감한 조선인들은 대자연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을 통해 황무지를 개척하고 벼농사에 성공하여 수전을 부칠 수 있게 되었다. 연변지역의 수전개발과 수전 농사는 모두 조선인 농민들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런가하면 조선인들은 한족, 만족 등 기타 민족과 문화적 마찰과 인정의 과정을 거쳤으며 봉건통치계급의 압박과 착취를 극복하기 위해 용감히 투쟁하였다. 다양한 충돌과 마찰, 융합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선족은 꾸준히 교육에 대해 자각하고 성찰하게 되었는바 이는 훗날 연변지역 민족교육운동의 성공을 위해 기초를 마련하였다.

둘째, 조선인의 교육사상은 다양한 사상의 충돌과 융합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19세기 중반으로부터 1905년 이전까지는 조선민족의 고유한 문화가 사람의 이동을 통해 연변지역으로 이식되어 청(淸)문화, 한(汉)문화 등 이문화(異文化)와 마찰이 생기고 서로 인정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1906년으로부터 1920년까지의 약 15년간 연변은 전통사상과 근대사상, 국내사상과 외래사상 간의 충돌과 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1920년대는 형성된 민족주의 교육사상을 바탕으로 공산주의사상과의 합의점을 찾으면서 최종 연변지역 조선인 특유의 교육적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시기이다.

이주초기, 즉 만주사변이전 연변지역은 사상적 혼재로 인해 교육이 난립하고 민중의 가치관 선택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들은 자생적 교육의식을 바탕으로 수시로 들어오는 사상들에 대한 선별과정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체적인 교육사상을 형성해 갔다. 이는 훗날 중국에서 펼쳐지는 조선족교육의 사상적 근원을 마련하였다.

※ 이 논문은 2018년 4월 28일에 투고 완료되어
2018년 5월 25일부터 6월 18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18년 6월 19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46) 박규찬, 『연변조선족교육사고』, 중국 장춘: 길림교육출판사, 1989, 4쪽.

참고문헌

『김정규일기』, 한국독립기념관 영인본.
『권업신문』 96호, 1914년 2월 1일자: 「북간도 소란경과에 대하여」.
『선조수정실록』 권11, 10년(1577) 5월 1일자.
신영철, 「재만조선인교육의 과거와 현재」, 『반도사화와 낙토만주』, 대련: 만선학해사, 1943.
심여추, 『연변조사실록』, 중국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1987.
용정현지방지편찬위원회, 『용정현지』, 연길: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1989.
윤정희, 「간도개척사」,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 3, 1991.
『이동휘가 안창호에게 보낸 편지』 1913년 9월 22일자, 한국독립기념관 자료

강룡범, 『근대 중조일 삼국의 간도조선인에 대한 정책 연구』, 중국 목단강: 흑룡강조선민족출판사, 2000.
고승제, 『한국이민사연구』, 서울: 백암, 1973.
김춘선, 『연변지역 조선족사회의 형성연구』, 중국 장춘: 길림인민출판사, 2001.
김해영, 「북간도 명동오현의 교육사상적 연원」, 영남대학교, 『민족문화논총』, 58, 2014, 491~517쪽.
김해영, 「용연 김정규의 교육사상 연구」, 한국교육사상연구회, 『교육사상연구』, 27(2), 2013, 23~42쪽.
김해영, 『20세기 초 연변 조선족교육사상 연구』, 연길: 연변교육출판사, 2014.
김해영, 『북간도 한민족교육사상의 형성과 전개』,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노귀자, 「중국조선족교육발전탐구」, 『흑룡강민족총간』, 2008(2), 164~167쪽.
문영미, 『나의 할머니 김신묵의 살아온 이야기』,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7.
문영금·문영미, 『기린갑이와 고만네의 꿈』, 서울: 삼인, 2006.
박주신,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박규찬, 『연변조선족교육사고』, 중국 장춘 : 길림교육출판사, 1989.
박금해, 『일본의 동북조선족에 대한 식민주의 정책』, 중국 연길: 연변대학출판

사, 2008.
박금해,「조선족백년교육의 이성적 사고」,『연변대학학보』, 37(1), 2004, 30~33쪽.
박금해,「신민주주의혁명시기 중국공산당 민족정책의 동북조선족지구에서의 실천에 관한 연구」.『민족연구』, 2001(6), 21~28쪽.
박광성,「재한 조선족 노무계층의 국가, 민족, 부족 정체성 연구」,『운남민족대학학보』, 27(3), 2010, 14~19쪽.
박태수,「조선족교육발전의 역사적 특점과 기본 경험」,『연변대학학보』, 36(2), 2003, 45~48쪽.
서굉일,「일제하 서북간도에서의 민족해방을 위한 역사교육」, 서굉일 외,『간도사신론』상, 서울: 우리들의 편지사, 1993.
서대숙,『김약연』, 서울: 역사공간, 2008.
손춘일,「9.18사변전 조선족민족교육발전의 특점에 대한 연구」,『민족연구』, 1992(5), 75~81쪽.
손춘일,『조선족이민사』, 중국 북경: 중화서국, 2009.
손춘일,「연변조선족집거지역의 형성 연구」,『민족연구』, 1990(1), 84~93쪽.
윤병석,『간도역사의 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연변대학교육학심리학교연실,『연변교육사』, 서울: 논장, 1989.
이희·양화,「새로운 형세하의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개혁에 관한 연구」.『중앙민족대학학보』, 1996(1), 23~29쪽.
천경화,『일제하 재만한인 민족교육에 관한 연구: 1906년-1920년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8.
최성학·이천민,『조선족교육의 현황과 이슈 연구』, 중국 연길: 연변대학출판사, 2014.
현규환,『한국류이민사』상권, 서울: 어문각, 1967.

Abstract

A study on the formation of Korean people's educational thoughts in the early stage of migration in Yanbian

JIN, Hai-Ying

The decades before the early stage of migration was the period of the gradual formation of Korean society in Yanbian, it is an important turning point of the Korean educational thought from traditional feudal thought to modern thought, and it is also a period of the conflict and blending of different cultures, the conflict between old and new, the conflict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forces, and even the conflict and fusion between the Communist ideology and the nationalist thought, the Korean educational thought was formed under the ideological background. The deep analysis of the forming process of the Korean peoples' educational thought in Yanbian during this period, especially the process of the conflict and integration of the thought, is the important historical basis to grasp the origin of the ethnic education development in Yanbian area.

This is also the formation and vicissitude process of Korean peoples' education in China, and it is the ideological base of the Korean peoples' educational thoughts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s well, which is of important and practical significance to the study on the Korean-Chinese minority education in the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understanding of Chinese national education abroad. Therefore,

this article focuses on the educational activities carried out by the Korean people during the early decades when they moved to China, and takes the early stage of migration as the center of Yanbian Korean society to investigate the educational thoughts which may function as the guiding role.

key words
Yanbian area, Korean people, Cross-border ethnic groups, Educational thought